

공연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2013~2017)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EFA)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FA)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참가
국가	중국 상해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10. 17 ~ 2017. 10. 23
파견예술가명	김신우

레지던스 기관 소개

1.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뜰리에 소개

- 2006년 독일의 괴를리츠(Gorlitz)에서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uropean Festival Association, 이하 EFA) 주관으로 처음 개최됨.
- 매년 2회 개최되며, “축제의 역할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감행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라는 가치 아래 7일간 전 세계에서 온 45인의 젊은 축제기획자들이 축제 프로그래밍과 축제 기획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축제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

2. 2017.10 상해 아뜰리에 소개

- 상해국제예술제와 병행하여 열린 상해 아뜰리에에는 20인은 중국 현지 참가자와 24인의 국제 참가자로 구성되었음.
- 상해대극장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국제적인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멘토링, 참가자들의 발표 및 토론, 피칭 세션 참가, 공연 관람 등의 활동이 진행됨.
- 다음 멘토들은 각자 특별 분야에 대해 강연을 했고,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짐.
 - 로빈 아처 : 호주 Th Light in Winter Melbourne 예술감독
 - 마크 볼 : 영국 LIFT 예술감독
 - 버나드 파브르 다르시에 : 프랑스 Lyon Biennial 예술감독, Avignon Festival 전예술감독
 - 넬레 허틀링 : 독일 HAU 극장 전 감독
 - 캐서린 왕 : 상해국제공연예술제 감독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멘토 주제 발표〉

1. 캐서린 왕: 상해국제공연예술제 감독
 - 상해국제공연예술제의 비전과 현황, 프로그래밍 방식, 프로그램 구성, 올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함.
 - 특히 젊은 작가들에게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off 프로그램의 기획이 인상적이었음. 이렇게 발굴된 작가 증가 다음 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한다고 함. 축제 기간 중 350개 이상의 공연, 문화행사가 열릴만큼 거대한 규모의 축제로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2. 마크 볼: 영국 NIFT 감독 / 맨체스터 축제 신임 공동감독
 - 축제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음 7가지 항목을 자신이 실제로 겪은 경험을 토대로 강연함.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소개하여 향후 축제기획자로서 마주하게 될 각종 난관을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인상이 들었음.
 - 1)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라
 - 2) 구체적인 숫자와 예산을 근거로 현실적인 계획을 도출하라
 - 3)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 4) 시각 디자인을 중요시하라 (브랜딩, 로고 디자인 등)
 - 5) 젊은 관객을 확보하라 (음악 콘서트 등 이벤트 개최)
 - 6) 축제의 관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 (설문조사, 후속 리서치, 디지털 팔로어 등 진행)
 - 7) 사람에 투자하라 (예술감독 혼자만의 독단적인 비전은 오래 가지 못한다. 직원 생일파티 등)

3. 티안 계방 (페이퍼타이거스튜디오 대표)
 - 중국의 독립 예술씬에 대한 자세한 소개, 프로듀서의 역할, 제작비 조성 방식, 국제적인 콜라보레이션 방식, 극장 외 공간에서 공연하는 방식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경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음.
 - 중국 예술계에 현존하는 정부의 검열 행위 소개
 - 현재 중국 공연예술계 동향 소개

4. 넬레 하틀링 (독일 HAU 극장 전 감독)
 - 축제가 다른 예술행사와 차별되는 이유와 그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탐구 할 수 있는 발표. 축제야말로 가장 압축적으로, 가시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음.
 - 요즘과 같이 축제가 난무하는 시대에는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며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5. 로빈 아처 (호주 Th Light in Winter Melbourne 예술감독)
 - 아뜰리에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다양한 질문과 담론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했던 발표로, 특히 축제기획자가 유념해야 하는 사항들을 아름다운 방식으로 묘사.
 - 축제는 모든 것의 합,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다양한 요소를 한데 모아 역동을 만들어내는, 배열의 미학. 예술감독과 운영감독의 존중과 균형이 축제의 성패를 좌우함. 모든 예술은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지 않은 예술은 엔터테인먼트, 가장 위험한 대화를 위한 가장 안전한 장이 바로 예술,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장, 이분법적이지 않은 회색의 공간, 공동체에 대한 존중, 모든 확실한 것들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의심.

〈참가자 발표〉

각각의 참가자들은 본인이 기획하고 있는, 혹은 미래에 기획하고자 하는 예술 행사에 대해 발표를 함. 워낙 인원이 많아서 각자 발표 시간이 2~3분 내외로 제한되었다는 점, 따라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 참가자들의(특히 중국 참가자들의) 배경과 관심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발표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웠음. 클래식, 상업, 컨템포러리, 음악, 문학 등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면 보다 효율적이었을 것 같음.

〈멘토링〉

오늘날 예술 기획자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와 고민거리, 주제들에 대해 약 2~3시간 가량 토론하고 멘토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4~5차례 정도 주어졌음. 젠더, 기술처럼 포괄적인 주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실패한 경험담, 축제 예산 편성 방식, 프로그래밍 방법 등 멘토들의 노하우를 소규모 단위로 배우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유의미했음.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소그룹이 형성되었음.

- 1) 기술
- 2) 젠더 정체성
- 3) 지역 축제
- 4) 새로운 축제의 형식
- 5) 예술가가 기획하는 축제
- 6) 제작, 창작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축제
- 7) 국제주의
- 8) 언어와 문화 다양성
- 9) 실패의 경험담
- 10) 프로그래밍 노하우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상해 : 중국에서 유일하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 역동하고 있는 예술 동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됨. 젊은 예술가들의 대담하고 실험적인 공연, 전시 등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편. 프로그램 일정이 워낙 촘촘했지만 틈틈이 미술관, 공연장, 예술거리 등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음.

호텔은 주요 행사장인 대극장까지 걸어서 15~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고 편리했음. 점심식사는 대체로 대극장 내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저녁 식사는 중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에서 이루어졌는데, 매번 음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대부분 남겨야 했음. 중국의 전통적인 식문화라고 함. 대극장 외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에는 대절버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음. 대기질이 나빠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축제 기획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법, 예산을 짜는 법, 실패의 확률을 줄이는 법, 홍보를 하고 관객을 개발하는 법 등 아주 구체적인 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특히 아뜰리에가 진행되는 현지 국가의 예술 동향을(이 경우 중국, 상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리서치 기회이기도 함. 체류 기간 동안 아뜰리에 프로그램 종료 후 남는 저녁 시간에 각종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것이 이러한 리서치에 큰 도움이 되었음.

그만큼 값진 것은 44명의 참가자 중 만나게 될 미래의 잠재적인 동료, 협력 파트너, 그리고 네트워크. 이번에는 각 참가자의 관심 분야나 예술적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마지막 2~3일 안에 모든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이 좀 더 행사 초반에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협업까지도 성사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이자 장기적인 미래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음. 먼저 다가가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함.